

굿모닝인천

SEPTEMBER 2020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21

09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

2020.09 | SEPTEMBER





기억 저편에서 내일로

1937년 8월 6일, 수인선 협궤열차의 첫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픈 역사 속 출발이었다. 일제는 경기도의 미곡과 인천에서 난 소금을 빼앗기 위해 수인선을 놓았다. 철길을 따라 우리 피땀의 결정체가 바다 건너 섬나라로 속절없이 흘러들어 갔다. 광복 이후엔 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인생의 철로 위를 달렸다. 그리고 1995년 12월 31일, 협궤열차는 멈춰섰다.

2020년 9월 12일, 폐선 25년 만에 수인선이 완전 재개통한다. 인천에서 수원까지 52.8km의 철길. ‘꼬마기차’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인선은 시간과 공간의 마디를 타고 흘러왔다. 그 길을 건너온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이야기가 쌓이고 쌓여 역사가 됐다. 그 역사는 내일로 이어진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손에 든 옛 사진(소래철교 | 김용수 | 1978년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은 협궤열차가 다니던 옛 수인선 철교의 모습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거니는 옛 철교 옆으로 수인선 전동 열차가 내달리고 있다.

09

SEPTEMBER 2020
Vol. 321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인쇄인
신봉훈(소통협력관)

편집인
백상현(소통기획담당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편집장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성환·임학현·최준근

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가기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임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CONTENTS

- 04 인천 미소
인천의 모든 것을 이 한 권에 外
- 06 화보
코로나19 거리 두기
- 08 인천의 맛
⑫ 영흥도 포도
- 14 다시 보는, 인천 속 이야기
아암도
- 18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사업
- 22 인천 VS 세계 도시
인천의 도시디자인 VS 런던의 도시디자인
- 26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④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 30 도시 브랜드 마케팅
인천크래프트
- 32 인천 공무원이 간다
탈북민 출신 9급 공무원 이승리
- 34 문화 캘린더
삼거리 골목식당 外
- 36 문화 포커스
온라인 콘택트
- 38 내가 사랑하는 인천
전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유필우
- 40 이미지 뉴스
인천형 뉴딜
- 42 시정 뉴스
코로나19 심각한 위기에 강도 높여 적극 대응 外
- 46 의회 뉴스
국제교류 예산 반납으로 위기극복 앞장 外
- 48 드로잉 인천
팔미도 등대
- 50 인포 박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外
- 54 자원 순환 버리스타 캠페인
- 55 월미바다열차 테마 역사 조성
- 56 소소한 인천 이야기
세 개의 뿔이 모인 쇠뿔고개 外
- 57 仁生 사진관
자매의 빛
- 58 인천의 아침
수인선
- 59 몽(夢)땅 인천 II
월미바다역 올림포스 호텔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인천의 모든 것을 이 한 권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감사드립니다. 시의 노력이 시민들
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정책 기사가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또 인천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이웃들의 소식도 전해주세요. 평범한 삶
속에 담긴 가치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인천의 매력을 타 지
역에 알릴 수 있는 명소 탐방 코너도 기대하겠습니다.

김주영 부평구 길주로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최근 다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힘든
현실 속에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과 청년들의 고민도 깊어만 갑니다. 청
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참여 가
능한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항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
로나19,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추지아 서구 송학로

가을 그리고 한 편의 시

코로나19와 장마, 무더위로 가득했던 2020년의 여름이 저물어갑니다.
올가을에는 부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그리움과 낭만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굿모닝인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詩 콘테스트’를 열
어보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숨은 글썽씨를 가진 시민들이 참
여할 수 있는 코너가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노봉애 부평구 안남로

오래도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결혼과 함께 고향에서 400km 떨어진 인천이라는 도시에 생전 처음 발
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때로는 외로움도 밀려왔습
니다. 두 딸아이를 낳고 키우며 어느새 인천은 삶의 터전이자 제2의 곡
향이 됐습니다. 지금은 부천에서 살고 있지만 인천은 언제나 제게 아름
다운 추억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김순임 경기도 부천시

감 사 합 니 다



우 리 동 네



파렘의 기억

글 장명수(서구 청라커널로)

나는 지금 소위 국제도시라 일컫는 청라에서 살고 있다. 여기에서 산 지는 5년밖에 되
지 않지만, 나는 이곳이 매립되기 훨씬 전 바다였던 1950년 7월의 기억을 갖고 있다.
당시 6·25전쟁을 피해 부모님을 따라 서구 연희동 해안에서 썰물 때 갯벌을 걸어 배를
타고 영종으로 피란을 갔다. 그러니 청라와 나의 인연은 70년이 됐다고 할 수 있겠다.
당시 청라는 순수한 우리말인 ‘파렘’이라 불렸다. ‘염(ړ)’은 지금은 사라진 말로 ‘작은
바위섬’이라는 뜻이다. ‘파렘’은 호주의 블루 마운틴처럼 멀리서 바라보면 푸른색으로
보였으므로 파란 섬이란 의미인 섬이다. 이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청라靑羅다.
인천 앞바다에는 이름 끝에 ‘염’이 들어간 섬이 많았다. 화력 발전소가 있는 울도는 예
전에는 ‘밤염’이었다. 매립 전의 파렘은 해발고도 67.7m, 면적 0.79km²로 원창동 해안
에서 3.5km, 연희동 서단에서 2.5km 떨어진 섬이었다. 그때는 여기가 온통 바다이고
매립 전이기 때문에 파렘에는 연희동이나 원창동에서 썰물 때 갯벌을 걸어서 왔다.
그 당시 청라도(파렘)는 가까이 있던, 지금은 매립되어 흔적조차 없는 까투ړ, 노ړ, 뺨
섬보다 면적이 커서 일곱 가구가 살았고, 인천의 어느 초등학교의 분교도 자리한 것으
로 기억한다. 조그마한 섬이었던 청라가 1980년대 매립, 2000년대 들어 국제도시로 조
성되기 시작하면서 바다 위에서 푸르게 빛나던 파렘은 섬의 생명을 마감하고 육지가
됐고,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70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영종으로 피란
가기 위해 갯벌을 걸어 지나간 파렘 청라가 이토록 규모가 큰 국제도시로 변할 줄을 그
때는 몰랐다.



거리두기 일러두기

어쩌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지혜로울지 모릅니다. 마스크 쓰기, 손 깨끗이 씻기, 서로 간의 거리두기. 어느 하나 빠트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해답은 그저 기본을 지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아이들에게 배웁니다.

- 2020년 8월 어느 날, 계양구 봉오대로
자연유치원 이슬반 어린이들



‘포도’의 어가는 시절,

영흥도 포도밭

인천의 맛



인천만의 ‘그 맛’이 있다. 지역 음식에는 고유한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 인천의 산과 들에서 자라고, 바다와 갯벌에서 펄떡이고 있을 먹거리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맛을 기록한다. 그 열두 번째는 햇살과 바닷바람 견디며 알알이 여문 맛, 영흥도 포도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취재 영상 보기

알알이 영그는 희망

영흥도 포도밭.
그 옛날 보리가 물결치던 땅은,
오늘 진한 포도 향기로 가득하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 이육사의 시 '청포도' 중에서 그가 기다리던 '청포를 입고 찾아온 손님'이 평범해서 소중했던 일상처럼 느껴지는 요즘이다. 바이러스로, 익숙하던 삶이 멈춰 섰지만 자연은 철마다 숨 고르기를 하며 유유히 흘러간다.



8월 중순, 장마가 걷히고 무더위가 찾아왔다. 이맘때면 하루가 다르게 곡식과 과일 이 무르익는다. 영흥도의 한 포도 농장. 봉지에 싸여 줄줄이 달린 포도들이 한 뼘의 별이라도 더 찢려고 목을 늘어 빼고 있다.

햇살과 빗물은 열매를 자라게 하고 바람은 당도를 끌어올린다. 영흥도는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데다 해풍이 불어 포도가 자라기 적당하다. 재배 면적 47ha(14만2,175평)에 생산량은 약 61만1,350kg. 현재 60여 농가에서 포도를 재배한다.

하나농원의 홍성도(71) 대표는 아내 김금분(70) 씨와 함께 고향 땅에서 20여 년간 포도나무를 가꿔왔다. 군 시절 말고는 섬을 떠난 적이 없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일구는 일을 숙명처럼 짊어지고 살았다. 그 옛날 보리가 물결치던 땅은, 오늘 진한 포도 향기로 가득하다.

포도나무를
심다

• 벉일을 하고 갯것을 캐던 섬사람들이, 흙을 만지고 포도를 기르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부터다. 옆 동네 대부도에서 포도로 ‘돈 버는 것’을 보고, 하나들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마늘, 고추 농사를 짓고 백합을 기르던 부부도 1990년대 중후반 포도 농사에 뛰어들었다. IMF 파고에 휩쓸린 사람들이 꽃을 곁에 둘 여유가 있을 리 없었다. 폭삭 망했다. 그렇게 하얀 백합이 진 자리에, 희망처럼 포도 열매가 알알이 맺혔다.

처음엔 991m²(300평)짜리 비닐하우스에서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6,611m²(2,000평)에 이르는 농장을 오로지 노부부의 힘으로 꾸려가고 있다. 평생 을 밭에서 보낸 베테랑 농사꾼들이지만, 그 삶은 녹록지 않다.

“일을 하고 싶으면 포도 농사를 지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젊을 때는 겁이 안났는데, 이젠 힘에 부쳐요. 농사일이란 게 하루만 게을리 해도 바로 티가 나니까.”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포도를 매만져왔다. 행여 농사에 소홀해질까, 간조 때 펼쳐진 바닷가 벌판이 아른거려도 갯일을 나가지 않았다. 눈뜨면 농장으로 향하는 삶이 버거울 때마다, 자식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매일 일복을 뒤집어쓰고 살지만, 다 우리 업이지요. 그래도 아들 하나, 딸 셋 가르치고 잘 키워냈으니 괜찮아요. 대신 자식들이 편하게 살잖아요.”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농사일을 물려주고 싶진 않다.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

하나농원의 홍성도 대표와 아내 김금분 씨.
6,611m²(2,000평)에 이르는 농장을 오로지 노부부의 힘으로 꾸리고 있다.



귀한 땀이 결실을 이루면, 농사꾼은 가슴이 부듯하다.

결실을
기다리며

• 해마다 포도가 무르익는 사이, 부부의 나이는 어느덧 칠십 고개를 넘었다. 고된 농사일로 손은 거칠어지고, 그 올린 얼굴은 나이트 같은 주름으로 뒤덮였다. 오늘 섬의 포도 밭을 지키는 건 대부분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다. 젊은이들은 매일 아침 흙을 밟는 대신 발전소로 향한다.

농사꾼들의 젊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자리엔, 여전히 꿈이 영어간다. 올해는 요즘 인기 있는 포도 품종인 샤인 머스켓을 새로 심었다. 땀 흘린 만큼 탐스럽게 자라는 열매를 바라보노라면 가슴이 부듯하다. 손님들이 포도가 맛있다고 치켜세우면 ‘이 맛에 농사를 짓지’ 싶다.

“이래 봐도 내 손으로 키운 포도가 ‘용진군 포도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상장 하나 받으려고 ‘군민의 날’ 행사가 열리는 백령도까지 갔는데, 내 농으로 경운기라도 하나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 말은 그리해도, 그 순간만큼은 내 몸부러 일할 줄밖에 모르던 삶에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햇살과 바닷바람에 맡겨 키우는 섬 포도는 가을에서야 결실을 이룬다. 그날을 기다리며, 부부는 오늘도 자연의 들숨 날숨에 호흡을 맞추며 땀을 흘린다. 서쪽에서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불어온다. 진한 향기를 풍기며 포도가 검붉게 익어가고 있다.

올해 새로 심은 샤인 머스켓

농사꾼들의 젊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자리엔,
여전히 꿈이 영어간다.
늦여름, 진한 향기를 풍기며
포도가 검붉게 익어가고 있다.



알알이 가득 찬,
보랏빛 싱그러움

바람 불고 햇살 좋은 늦여름, 섬 포도밭.
‘보랏빛 향기’ 가득한 탱글탱글한 알맹이를 따서
접시 위에 올린다. 새콤달콤 입안 가득 퍼지는 싱그러움.
그 맛은, 열매가 자라는 동안 스미고 스민
농부의 정성스러운 땀방울에서 시작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포도주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그 선물은 포도
로 빚어낸다. 포도는 향미가 깊고 과즙이 풍부한 ‘과일의 여왕’.
당분이 14~15%로 무르익을수록 높아진다. 또 비타민 A, B, B2,
C, D와 무기질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 좋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통조림, 주스, 잼, 식초, 술 등을 만
들어 먹어도 좋다.

포도는 서아시아 흑해 연안과 캅카스Kavkaz 지방이 원산지로 BC
3000년 무렵부터 기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중국
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1906년 서울 독섬의 ‘원예모범
장’에서 품종을 개발해 재배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품종은 캠벨 얼리Campbell Early. 일
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잘 자라며, 인천에서는 옹진군 영흥도와
북도면, 강화군에서 난다. 영흥도의 포도 재배 면적은 옹진군에
서 가장 넓은 약 47ha(14만2,175평), 생산량은 약 61만1,350kg
에 이른다. “해가 길고 바닷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자라는 영흥 포
도는 당도가 높고 풍미가 뛰어납니다. 또 농가마다 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을 받아 믿고 먹을 수 있지요.” 조상 대대로
영흥도에서 살아왔다는, 옹진농협 영흥점의 김길호(54) 점장은
포도라면 단연 영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포도 고르기 | 포도송이의 알이 꼭 차고 일정하면서도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아야 한다.
이파리가 싱싱하고, 포도알은 색이 진하며 당분이 배어난 하얀 가루가 많을수록 달다.
씻는 법 |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가둔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
영흥 섬 포도를 구입하려면
옹진농협 영흥점을 이용하거나,
농장에 직접 방문 혹은 연락 후
택배로 받으면 된다.

하나농원
영흥면 영흥로 488번길 42 ☎ 010-7192-9388
옹진농협 영흥점 ☎ 032-886-7004
옹진군청 농업기술센터 ☎ 032-899-2114



포도 피클

입안에 보랏빛 과즙이 팡팡, 몸엔 생기가 가득.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포도로 피클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꺼내 먹자. 건강을 챙기
는 것은 물론이고 시각과 미각적인 즐거움까지 준다.

재료

포도 1송이, 사과식초 200ml, 레몬즙 100ml, 물 200ml, 설탕 200g, 통후추
1ts, 월계수 잎 2장, 피클링 스파이스 1ts, 시나몬 스틱 1개, 로즈메리 1줄기

만들기

- 1 ——— 피클 담을 용기를 끓는 물에 소독해 준비한다.
- 2 ——— 포도는 알알이 따서 식초 1~2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깨끗이 씻어 준비한다.
- 3 ——— 냄비에 물을 팔팔 끓여 씻은 포도를 살짝 데친다.
- 4 ——— 데친 포도는 건져내어 얼음물에서 식힌 후 껍질을 제거한다.
- 5 ——— 소독한 용기에 4의 포도를 넣는다.
- 6 ——— 피클 주스용 재료를 냄비에 모두 넣고 끓으면 불을 끈다.
- 7 ——— 5의 용기에 붓고 3시간 정도 상온에 두어 식힌 후
냉장고에 보관한다.



구운 포도를 올린
크림치즈 바게트

구운 포도를 올린 바게트에 와인을 곁들여 음미하며 ‘작은 사치’를 누리자. 과즙이 흘러넘치는
구운 포도와 고소한 크림치즈, 바삭한 바게트가 조화롭게 입안에 어우러진다. 오도독 씹히는
호두강정의 식감도 매력적.



재료

포도 20알, 올리브유 3Ts, 소금 2꼬집, 설탕 2ts, 타임 3줄기,
바게트·크림치즈·호두강정 적당량

만들기

- 1 ——— 포도를 식초 1~2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다.
- 2 ———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물기를 제거한 포도를 넣어 굽는다.
- 3 ——— 소금과 설탕, 손으로 뜯은 타임 2줄기를 넣고 잘 섞은 뒤
뚜껑을 덮어 구워낸다.
- 4 ——— 오븐에서 살짝 구운 바게트에 크림치즈와 구운 포도를 올린다.
- 5 ——— 호두강정과 타임 1줄기를 올려 장식한다.

호두강정

재료 호두 5알, 설탕 1Ts

만들기

- 1 호두는 잘게 썰어 오븐에 살짝 구워낸다.
- 2 프라이팬에 설탕을 넣고 끓여 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호두를 넣어 잘 볶는다.
- 3 캐러멜색이 나면 트레이에 옮겨 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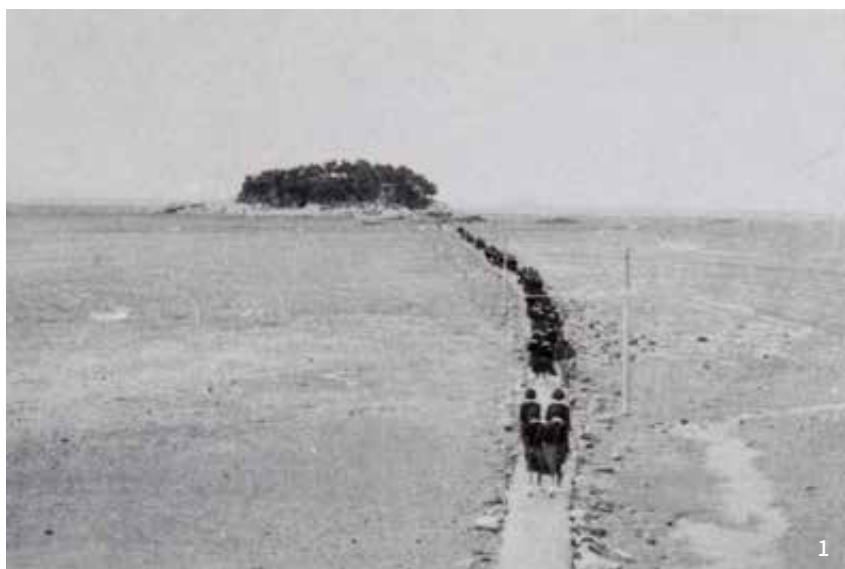
아, 아암도

비대면
세상에

대면하는
섬

인천의 섬 호적에서 사라진 섬은 하나둘이 아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매립으로 인해 제 몸 내어주고 땅 한 뼘을 넓힌 섬들이 수십 개에 달한다.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개중에는 뭉개지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섬 아닌 ‘섬’도 있다. 아암도^{兒岩島}가 그러한 섬이다. 인천의 168개 섬 명부에서는 지워졌지만 중년 이상의 인천 시민이라면 그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글·사진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



1



2



3

- 1 1976년 아암도 기행 모습(인성여고 앨범 중)
- 2 풍화혈 등 시간의 흔적이 새겨진 아암도 갯바위
- 3 아암도 앞바다에는 갯가지 기암들이 흩어져 있다.
- 4 섬 앞에는 여러 갈래의 갯골이 나 있다.



4

바다 출구 ‘엑소더스’

아암도는 가족 섬이다. 아암도와 소아암도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주변 바위섬들이 함께 있어 아빠 섬과 엄마 섬 그리고 자식 섬들이 한데 모여 있는 모양새다. 전체 면적이 6,058㎡(1,832평)로 웬만한 동네 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섬이다.

아암도는 배를 타고 가는 섬이 아니었다. 옛 송도유원지를 통해야 그 섬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바다 쪽으로 나 있는 유원지 쪽문부터 아암도까지 거리는 700m 정도. 바닷물이 빠지면 길이 열렸다. 사람들은 물이 빠지길 기다렸다가 섬으로 건너갔다. 아암도로 향하는 행렬은 마치 모세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의 ‘엑소더스’와 같았다. 1990년대까지 인천에서는 바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곳곳이 공장 담으로 막혔고 그나마 바다가 찰끔 보이던 곳은 군 철책으로 두루 감쌌다. 아암도행 엑소더스는 시민들의 바다 갈구 행렬 그 자체였다.

유원지 측에서는 아예 걸어가기 편하게 돌을 깔고 시멘트를 부었다. 해수욕장은 한철 장사였지만 아암도 ‘기행’은 철을 타지 않았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바위섬에 행락객들이 덕지덕지 올라앉았다. 그 저 섬 하나였지만 그곳에 서 있으면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개방은 되었지만 이곳은 군인의 섬이었다. 총기를 든 군인들이 초소를 지키며 관광객들을 감시했다. 사진 촬영이 금지되었다. 이 때문에 이 섬 안에서의 기념사진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바라본 인천 앞바다나 송도유원지 혹은 청량산이 담긴 사진을 지금도 거의 볼 수 없는 이유다.

떨어진 ‘와이키키 비치’의 꿈

아암도는 바다를 갈망하던 인천 사람들의 슬한 사연과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1980년대 초부터 송도유원지 일대를 넓히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과 1981년 인천위생공사와 (주)한독은 송도 갯벌을 매립했다. 이 바람에 아암도와 그에 딸린 소아암도는 육지와 붙어버렸다. 더이상 섬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작은 동산으로 남게 되었다.

게다가 1994년 섬을 스쳐가듯 왕복 6차선 해안도로가 뚫렸다. 자동차가 그 옆으로 뿔뿔 달리면서 발걸음은 뜸해졌고 육지에 딸린 아암도는 점차 기억 속에서 잊힌 섬이 되었다. 이듬해 3월 아암도 해변을 ‘하와이 와이키키 비치’처럼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갯벌 일부를 인공 백사장으로 만드는 구상이었다. 비치를 조성하기 위해 섬 주변에 바닷모래 수십 톤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며칠 후 모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하루에 두 번 드나드는 밀물과 썰물이 모래를 쓸고 나갔다. 아마도 모래는 원래 있던 섬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인천의 와이키키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2001년 아암도는 주변에 있던 철책과 해안 초소를 없애고 폭 10m, 길이 1.2km의 해양공원으로 꾸며지면서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이후 이곳에서 ‘바다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시티 투어 버스를 정차시키는 등 발걸음을 이끌었지만 아암도 ‘기행’의 배후였던 송도유원지가 문을 닫으면서 시민들의 바다 출구도 서서히 닫혀갔다.



5 갯골에 비친 송도국제도시 야경
6 소아암도 위를 나는 갈매기



청룡이 물고 놀았던 ‘여의주’

지난 8월 한낮, 아암도에 들어갔다. 비록 한쪽은 육지에 붙어 있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다. 하루에 두 번 아암도는 바닷물에 몸을 담근다. 그 덕에 갯가에는 갯질경이, 칠면초 등 염생식물들이 자라고 앞쪽 갯벌에는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수를 웃도는 게집이 깔려 있다.

아암도 앞바다에는 여러 갈래의 갯골이 나 있다. 그 갯골 따라 게, 갯지렁이 등 생물의 움직임이 빈번하다. 하늘에는 이를 먹이로 삼는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해 황조롱이,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이 무리를 지어 날고 있다. 바다와 통하는 아암도에는 여전히 바다 생태계가 살아 있다. 흩어진 갯바위는 바닷물과 바람이 만든 풍화혈의 시간을 품고 있다. 특히 공룡 발자국처럼 움푹 패어 있는 암석은 태초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갯바위를 디딤돌 삼아 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 갯벌의 끝에 서서 아암도를 바라보았다. 울창한 숲으로 쌓인 채 봉긋 솟은 섬의 자태가 앙증맞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나 보아온 아암도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동안童顔’이다.

그 뒤로 청량산이 눈에 들어왔다. 청량산은 인근 마을에서는 ‘청룡산’으로도 불렸다. 옆의 봉재산과 함께 이어서 바라보면 한 마리의 청룡이다.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문득 아이들이 생각나 집 쪽을 바라본 아낙네의 눈에 이 아암도는 청룡이 입에 물고 놀았던 ‘여의주’였을 것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을 무렵 두 명의 아이가 섬에 ‘상륙’했다. 옥련동에 서부터 해안 길을 따라서 걸어왔다고 한다. 그들은 물 빠진 갯바위를 오르내리며 뛰어놀았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섬을 빠져나가다가 작은 해변에서 돌을 집었다. 그러곤 시합하듯 물수제비를 떴다. 그들이 던진 돌들이 붉게 물든 바닷물을 파편으로 만들었다. 오랜만에 사람을 맞았는지 갈매기도 그들의 놀이에 어지러운 비행으로 화답했다.

세상과 비대면해야 할 이때 청룡이 갖고 놀았던 여의주 섬, 아암도에 들어오면 대면해야 할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옛 추억을 대면할 수 있다.



7 일몰 무렵의 아암도

문화예술 특화거리 | 점점점

‘점점점’은 지역을 거점으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포동에 부는 문화 바람~ ‘점점점’

예술가들에게 경제적인 걱정 없이 예술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관람객들은 굳이 근사한 전시관이 아니더라도 부담 없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과 작품을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다면?

신포동에서는 이런 문화 경험이 가능하다. 건강한 지역문화생태를 만들기 위해 진행된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사업으로 최근 신포동 일대에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9개가 동지를 틀었기 때문이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지역 거점의 자유로운 예술 공간

“예술가들이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사람들이 쉽게 예술가들의 작품을 향유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특화된 문화거리가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점점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윤세정(31) 인천문화재단 주임은 예술가들이 신포동에서 공간을 직접 찾아 거점으로 활동하게 하고 또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점점점’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예술전문가, 기획자,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지역문화생태를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간판달기식이 아닌 민간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예술인들이 자생력을 갖고 특화된 거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름처럼 언젠가는 지금의 9개 창작 공간인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점점들이 생기면 면 단위의 확장된 개념도 형성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세정 인천문화재단 주임

작가들이 만족하는 현실적인 공간

“우리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언제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죠.” 창작 공간 9개 중 하나인 ‘작은연극연구소’의 유무선(28) 씨는 걱정 없이 예술에만 몰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주 만족스럽다고. “‘점점점’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다 같이 만나는 ‘반상회’라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협업할 수도 있고, 각자의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거북이와 두루미’ 김수한(39) 씨도 기관이나 상업 공간에서 보여주는 다소 제한적인 작품이 아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가감 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점점점’ 사업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점점점’은 창작 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예술가가 직접 찾고, 그 과정에서 공간 매칭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다른 문화예술 사업과 달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으로 작가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게 만들어준다.



점점점 9개의 창작 공간

‘점점점’의 공간들은 본디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기에 일반적으로 늘 개방되는 곳은 아니다. 각각의 공간들은 개별적으로 전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개방하며, 관련 내용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인천문화재단은 공연과 전시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오는 10월 말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1 작은연극연구소

극단 MIR레퍼토리의 젊은 연극인 유무선(28), 문이지(24), 이한솔(31) 씨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공연과 주제에 관해 실험적인 연극을 하는 공간이다. 조각칼로 만든 간판, 방음 공사, 무대 등 공간 구석구석을 직접 만들어서 더욱 애정이 간다고. 작품 트레이닝, 공연 연습, 회의 등을 하면서 1인극, 낭독, 정극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2 아트랩999

인천의 옛날 극장과 관련한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굿즈를 제작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각예술실험공간. 옛날 미림극장에서 쓰던 영사기 램프로 만든 설치 작품과 인천우유 광고에서 힌트를 얻어 제작한 유리컵 등 향수를 자극하는 물건들이 가득하다. 특히 미림극장과 같이 옛 모습을 간직한 일본 요코하마의 ‘책앤베틀극장’과 교류도 활발하다.

3 영일상회 인천점

시각예술 작가들이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념품 가게이다. 인천의 바다를 형상화한 양말, 티백홀더, 조립 키트 등 시각예술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다른 지역에는 없는 독특한 ‘인천 굿즈’를 만든다. 기념품 탄생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리서치 자료도 전시돼 있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매주 주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4 중구난방

시각예술, 영화비평, 문학 등 장르가 다른 창작가들의 컬래버레이션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각각 장르는 다르지만 협업을 통해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현재 매월 신포동 일대의 음식을 하나씩 정해 각각 그림과 단편소설, 에세이로 표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개항장 일대 특정한 지역을 그림으로 옮기는 ‘개항장 야외 드로잉’도 계획 중이다.

5 드르르륵 BRRRT

2018년에 설립되었으며 미술, 음악, 건축, 디자인, 이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신포동을 기반으로 연구하고 공유하는 창작 공간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인천을 바라보는 작품을 선보인다. 아담한 공간에 창작자 작업실과 전시 공간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모습이 이채롭다.

6 일일댄스프로젝트

30년 경력의 현대무용가 송주원(47) 씨가 거세게 몰아치던 근대화의 바람, 재개발의 광풍 등 바람을 타고 변화하는 인천의 모습을 담은 작품 ‘바람바람바람’을 만들기 위해 리서치하고 연구하는 공간이다. ‘바람바람바람’은 무용과 영상의 컬래버레이션 전시로, 장소와 지역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도시 공간 무용 프로젝트다.

7 거북이와 두루미

김수한(39) 작가와 백인태(38) 작가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 김수한 작가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순수시각 예술로 만든 작업들을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비밀기지 같은 은밀하고 특별한 공간에서 작업물을 만들어내는 백인태 작가의 ‘Picket Weapon’의 제작 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 www.instagram.com/turtlegrus

8 젊은논의(LBDF)

노기훈(35) 작가가 아르헨티나 작가인 보르헤스의 단편소설 ‘바벨의 도서관’에서 영감을 받아 꾸몄다는 ‘사진의 도서관(LBDF : La Biblioteca De Foto)’으로, 책을 통해 사진 매체의 다양성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이동과 설치가 가능한 조립식 모듈 가구로 이루어져 언제 어디에서나 전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9 예인인력

작가 4명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지역의 커뮤니티와 연계해 결과물을 만드는 ‘커뮤니티 아트’를 작업하는 곳이다. 현재 진행 중인 ‘마켓팅스’는 신포동 주변 상인들과 연계해서 일상의 것들을 예술로 구현하고 작품들을 함께 공감하고 향유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말 전시회를 열고, 작품들은 상인들에게 선물로 증정할 계획이다.

작은연극연구소
신포로15번길 68-1 2층

아트랩999
신포로27번길 61-1 1층

영일상회 인천점
신포로23번길 43 1층

중구난방
신포로15번길 6-2 3층

드르르륵 BRRRT
제물량로166번길 14 3층

일일댄스프로젝트
우현로35번길 15-1 2층

거북이와 두루미
제물량로 162-2 2층

젊은논의
제물량로 160-2 2층

예인인력
우현로39번길 9 3층



INCHEON CITY DESIGN

인천문화예술회관 야간 경관 사업

도시, 디자인을 입다

도시디자인은 그 도시에 대한 인상, 즉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 역시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도시디자인 발굴과 적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디자인을 통해 변모하는 도시 이야기. 인천과 영국 런던의 사례를 알아본다.

글 임철하·박미선 시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 | 사진 시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 셔터스톡



부평구 동소정굴다리 보행로 내부 공공디자인 사업 전(왼쪽)과 후(오른쪽)



VS

밀레니엄브리지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런던 시민들



LONDON CITY DESIGN

디자인, 그 이상의 디자인

인천시는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년) 이전인 2014년부터 공공디자인 조례를 마련해 의미 있는 디자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가로 시설물 등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디자인 마을을 만들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인천만의 도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인천색 개발, 야간 명소 조성 등도 인천 곳곳을 다채롭게 변화시키는 요소들이다. 또 시 차원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인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2017년)’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화 사업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맞이하는 도시, 국제 안전 도시, 오감 만족 도시 등의 디자인 사업도 실행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도시디자인 트렌드도 변화한다. 최근

에는 단순히 외형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 문제 해결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서비스 디자인과 범죄 예방 디자인(CPTED),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도입해 시민 생활 밀착형 도시디자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매년 시민 참여형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시민 디자인단(220여 명)을 모집해 본격적인 시민 디자인 정책도 발굴하고 있다.

원도심, 디자인으로 꽃피다

인천의 대표적 도시디자인 정책인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의 어느 한 부서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 다양한 기관이 공공디자인 기법을 적극 활용해 동시다발적으로 원도심을 아름답

1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
안내 사인 표준디자인 사례
2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심사 현장
3 제6차 OECD세계포럼 당시
전시 홍보 활동



VS



4 런던 테이트모던미술관의 야간
경관 조명 사례
5 도시를 예술과 빛으로 물들이는
뤼미에르 런던 빛 축제

고 쾌적한 디자인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중이다.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은 ‘Colorful Days, Shining Nights!(낮과 밤이 아름다운 인천)’라는 슬로건 아래, 원도심 주요 공간을 중심으로 색채, 빛, 디자인을 통해 회색 이미지의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주간에는 인천 10색을 활용한 색채와 디자인을 보급하고, 야간에는 빛을 통해 야간 경관 명소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시청 앞 광장인 인천愛뜰, 수봉공원 등이 대표적인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례다.

도시엔 ‘질서와 개성’을 더하다

시는 가로 환경을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가로 시설물 디자인도 개선하고 있다. 2012년 가로 판매대와 구두 수선대 표준디자인을 개발해 46개소를 교체했으며, 매년 안내 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등을 개발·보급했고 올해에는 숲길 안내 사인 디자인을 개발하

고 있다. 공공시설물 표준화를 통해 무분별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일관성 있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표준디자인이 도시의 질서를 책임진다면 2019년부터 시행한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는 도시에 개성을 더한다.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는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공고와 평가를 거쳐 우수 디자인 인증을 통해 각종 도시 건축 사업에 보급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간 업체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탈락 업체에게는 전문가 컨설팅 개념의 디자인 클리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칫하면 획일화될 수 있는 공공 주도의 디자인 정책에 개성을 더해 인천 디자인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점차 건축물, 공공 공간 등으로 인증 범위를 넓혀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민간 기업의 디자인 분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도시 런던의 ‘Design for London’

이제 도시디자인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중에서도 인천 도시디자인의 벤치마킹 사례를 꼽으라면 영국 런던의 정책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수상이 강력한 디자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남긴 ‘Design or resign(디자인하지 않으면 사임하라)’이라는 문구는 지금도 수많은 도시에 영감을 주고 있다. 런던은 1996년 ‘Design for London(런던을 위한 디자인)’을 통해 테이트모던미술관, 밀레니엄브리지, 밀레니엄돔 등을 탄생시켰으며, 디자인을 기반으로 낙후된 도심 지역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도시 재생 정책의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시민의 자긍심 향상과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 성공 사례로도 회자되고 있다. 2018년 런던 곳곳의 랜드마크에서 펼쳐진 축제인 ‘뤼미에르 런던 빛 축제’는 도시를 예술과 빛으로 물들인 런던의 야간 특화 명소화 전시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의 착한 디자인

선진 도시들의 사례를 배우고 익힌 인천의 디자인 정책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2년 연속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8년 지방자치대전(지역 개발 및 공공디자인 분야) 대통령상 수상, OECD세계포럼 초청 전시 등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천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꼽는 인천의 도시디자인 경쟁력은 바로 ‘시민 중심 디자인’이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살기 좋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시정 슬로건에 걸맞게 시민 참여 디자인을 적극 실행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디자인, 마을 디자인, 안전 디자인, 색채 디자인, 야간 조명 디자인 등 5개 분과 220여 명의 시민 디자인단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인천의 구석구석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더 나은 도시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모두를 위한 착한 디자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인천여상인’입니다

세상 모든 학교는 귀하다. 허나 그 속에서도 특별한 전통과 저력을 품은 곳이 있다. 학교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보는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그 네 번째 등갯길을 따라 신생동 언덕길을 올랐다. 일제의 강점과 광복이 교차했던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75년 찬란한 역사 품은 그 길을 문해자 총동창회장(20회 졸업)과 함께 걸었다.

글 전규화 자유기고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개교 당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는
율목동 인천상업학교 건물을 빌려 입학식을 거행했다.



역사의 소용돌이가 만든 역사

1945년 4월 12일,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가 개교했다. 인천 최초 여성 상업학교의 탄생이었다. 지금의 신생동 언덕 위가 아니었다. 당시 율목동에 있던 인천상업학교 건물을 빌려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첫 입학생은 한국인 학생 25명과 일본인 학생 25명이었다.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시절이었음에도 인천과 경기, 서울에서까지 학생들이 몰렸다.

뜨거웠던 시간도 잠시. 개교 4개월 만에 찾아온 광복은 아이러니하게도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를 혼돈에 빠트렸다. 일본인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뿔뿔이 흩어졌다. 남은 한국인 학생만으로는 수업이 불가능했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강제 동원

됐던 인천상업학교 남학생들까지 돌아오면서 그나마 빌려 쓰던 교사校舍마저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존폐의 위기를 맞았지만 역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당시 이원옥 교장의 노력으로 인천제1공립초등학교(현 송림초등학교의 옛 교사) 교실 몇 칸을 빌려 학생을 모집했다. 허나 이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광복과 함께 피어난 뜨거운 교육열로 또 한 번 이사를 가야만 했다. 알곳은 역사는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를 다시 인천상업학교로 이끌었다.

“당시 전교생 60여 명이 책상과 의자를 머리에 이고 배다리 거리를 한 줄로 늘어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후 6개월 만인 1946년 10월에는 만석동에 있던 풍국제분 공장으로 학교를 옮겼고, 1949년이 되어서야 지금의 신생동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인천 금융 인재 양성의 산실

1940~1950년대가 혼돈의 시기였다면, 1960~1980년대는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가 가장 찬란히 빛나던 시절이었다. 단언컨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는 인천 여성 실업 교육의 선구자였다. 국가도 인정했다. 1970년대, 당시 정부는 전국 여성 상업학교 네 곳에 최신식 기자재를 지원하고, 학생 수도 줄여가며 인재 양성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그리고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가 그 주인공이었다.

“당시는 딸을 대학에 잘 보내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이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중학교 한 반 60명 중 최소한 10등 안에는 들어야 원서를 써줄 정도였으니까요.”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타이틀 뒤엔 뜨거운 학구열이 있었다. 졸업 후 사회에 뛰어들어서도 펜을 놓지 않았다.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교 진학 등으로 학업을 이어갔다. 성공은 학생들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았다. 인천 지역 금융 산업 성장이 곧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다. 현재도 수많은 동문들이 은행과 보험사 등 굴지의 금융 기업 요직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후배들 역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을 뚫고 있다.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는 자랑스러운 동문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단위 학교 공간 혁신, 학과 개편 등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실내

변화로 준비하는 제2의 전성기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은 때때로 학교를 위기에 빠트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것과 바뀌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는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는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며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다.

“특성화 교육과 함께 많은 학교들이 이름을 변경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역시 많은 고민을 거듭했지만, ‘인천여상인’이라는 자부심이 담긴 이름만은 끝까지 지키기로 했습니다. 단, 외형과 내실을 함께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하는 중입니다.”

75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의 오랜 교사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린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단위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 새 옷

으로 갈아입는 작업이 순조롭다. 내년 설계가 마무리되면, 머지않아 학생들은 역사와 첨단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2021년 신입생들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의 달라지는 학과 개편의 첫 수혜자다. 기존 국제통상과가 무역외국어과로, 디지털정보과가 IT크리에이터과로 변경된다. 인천의 특성이 반영된 무역과 관세 분야 산업에 적합한 인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의미 있는 변신이다.

“과거의 명성에만 머문다면 학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천여상인’이라는 자부심의 이름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학교와 학생, 총동창회가 한마음으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제2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최완순 교장과 문해자 총동창회장, 김현숙 감사(왼쪽부터). 학교와 총동창회의 열의와 노력으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는 명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초, 최고의 대한민국 해양 경찰

박경순 서장(24회 졸업)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동문들의 무대는 분야를 넘나든다. 금융은 기본,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박경순 서장은 1986년 국내 1호 여성 해양 경찰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이후 최초의 여성 총경, 최초의 여성 해양경찰서장으로 승승장구하며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어릴 적 꿈이었던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1991년 등단해 지난해 발표한 시집 <그 바다에 가면>까지 모두 네 권의 시집을 펴냈다. 후배들에게 던진 ‘꿈을 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 그 자체가 박경순 서장의 삶인 셈이다.

답답한 방콕은 그만! 랜선으로 인천을 누비자~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여행마저 자유롭지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런 땐 가상 여행이라도 즐기면서 아쉬움을 달래보면 어떨까? 마인크래프트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인천 여행’이 가능하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이미지 출처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에서 즐기는 인천 여행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과 젊은 층이 가장 선호하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는 다양한 블록을 활용해 가상 세계를 건설하고 탐험하는 샌드박스 게임으로, ‘게임계의 레고’로도 불린다.

인천시는 세계적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인천크래프트’를 9월 26일 공개한다. ‘인천크래프트’는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상의 인천시를 만들어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사시대 강화도 고인돌, 1900년대 개항기, 인천국제공항, 인천대교, 송도, 인천시청 등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인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국내 최초 100만 유튜버이자 마인크래프트 인기 크리에이터 ‘양띵’도 인천 개항장 일대를 마인크래프트로 재현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 두 번이나 투옥됐던 인천감리서를 중심으로 펼치는 ‘백범 김구 탈출 이벤트’를 지난 8월 29일 유튜버를 통해 공개했다. 숨 막히는 감옥 탈출기는 ‘인천시 유튜브’와 ‘양띵 유튜브’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내 손으로 인천의 랜드마크를 만든다

인천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9월 13일까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천 랜드마크 건축 콘테스트’를 펼친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인천국제공항, 인천대교, 인천시청, 송도, 고인돌 유적지, 개항지 일대 등의 건축물을 만든 뒤 인스타그램에 ‘#인천크래프트’ 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올리면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우수작을 대상으로 그래픽카드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 행사를 알리기 위해 지난 8월 24일에는 루태, 다주, 서녕, 삼식, 콩콩 등 인기 크리에이터와 100명의 게임 유저가 참가하는 ‘인천 랜드마크 건축 대결 이벤트’를 트위치TV를 통해 라이브로 중계해 1만여 명이 시청하기도 했다.

인천 랜드마크 건축 콘테스트 우수작과 인천의 매력이 가득 담긴 ‘인천크래프트’는 오는 26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SNS 채널, 마인크래프트 주요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되며, 마인크래프트 이용자 누구나 직접 인천을 여행하고 체험할 수 있다.

이상숙 인천시 브랜드전략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패러다임에 발맞춰 마인크래프트에서 인천시를 여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인천크래프트’를 만들었다”며 “인천크래프트를 통해 MZ세대*와 소통하면서 인천의 다양한 매력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 랜드마크 건축 콘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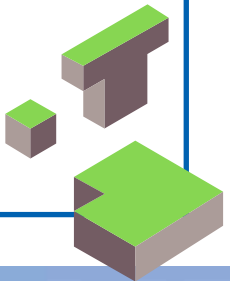
공모 주제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여 방법
1단계 : 본인이 생각하는 인천 랜드마크 건축물을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건설하고 이미지 캡처
2단계 : 본인 인스타그램에 #인천크래프트 해시태그와 함께 건축물 이미지 게시
3단계 : 제작한 건축물 파일과 캡처 이미지를 해당 이메일(incheoncraft@directormarket.com)로 접수

접수 기간
~9월 13일까지

수상작 발표
2020년 9월 21일



*MZ세대 :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천에서 이룬 꿈 안고, 가족과 버스 타고 고향 함흥에 가고파”



탈북민 출신
인천 공무원
이승리

“

탈북민은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세상에서 살던 분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해하고 따뜻하게 포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근무한 지 벌써 5년이 다 됐건만, 시청에 들어설 때면 언제나 가슴이 벅차오른다. 지난해 청사 앞 광장이 잔디밭 ‘인천愛뜰’로 바뀌면서 출근길 발걸음은 더 경쾌해졌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9급 공무원이니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이승리(42) 주무관. 그의 업무는 인천에 정착한 2,967명의 탈북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종합검진비 30만원 지원, 탈북민과 중소기업 간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통일동산 조성, 탈북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 등이 주무관의 업무는 탈북민의 복지에 맞춰져 있다. 누구보다도 탈북민을 잘 아는, 그 역시 탈북민이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나빠지고, 남한에 와서는 사회·문화적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듬어주는 게 제 역할이지요.” 이 주무관은 “인천시는 꾸준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쳐왔고 탈북민 지원 사업은 그중 하나”라며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보람이 크다”고 웃음 짓는다.

함경남도 함흥 출신인 이 주무관이 해엄처 두만강을 건넌 때는 함흥의과대학 4학년이던 2000년 10월. 탈북 뒤 중국에서 5년을 머무르던 그는 우여곡절 끝에 2005년 말 인천으로 온다. 그렇게 축산회사에서 1년간 일하던 그는 돌연 대학 진학을 결심한다. “저를 받아준 인천을 위해 일하고 싶었고 그러려면 실력을 더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외대에 입학한 그는 2011년 학사모를 썼고,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는다. 남동구청에서 한 명 뽑는 기간제 공무원에 합격한 것이다. “공무원에 임용되고 나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좋아하면 잘할 수밖에 없는 법.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이 주무관은 2016년 인천시청으로 전입한다. 그리고 어마

어마한 말을 듣는다.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승리 씨는 시장님처럼 인천시를 대표해서 일하는 거라고, 먼저 온 미래라고.” 그는 “지금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시민 시장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가 속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은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 도시 인천’이란 비전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최전선에서 끌어가는 부서다. 지난해만 해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크게 늘렸고, 서해 접경지역 평화를 위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출범, 서해평화포럼 창립 등 인천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사업을 차분히 추진해 왔다.

이 주무관의 꿈은 다섯 자녀와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 땅을 밟는 것이다. “남과 북은 왕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가면 평화통일은 자연스럽게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들이 탈북민과 잘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세상에서 살던 분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해하고 따뜻하게 포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0 September

09

Culture Calendar



※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방지 노력에 따라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관람 부탁드립니다.
※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와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 시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달의 공연

04 금 삼거리 골목식당 다락 소극장 4~13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2시·6시, 일요일 오후 3시 전석 2만원 ☎ 032-777-1959	11 금 온라인 인천시립무용단 기획공연 Inside-Out ‘달빛 나나니’ 인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 오후 2시 게시 ☎ 032-420-2788 인천시립교향악단 ‘브라스 판타지아2’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032-420-2742 테라피 클래식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11일 오후 7시 30분 12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전석 1만5,000원 ☎ 032-500-2000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032-420-2737 온라인 인천시립극단 정기공연 ‘십이야’ 인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 오후 7시 30분 게시 ☎ 1588-2341
06 일 인하오케스트라 제40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무료 ☎ 032-860-8505 실내악 시리즈 10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13 일 이은빈 비올라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16 수 2020 커피콘서트Ⅶ 음악그룹the튼 ‘길가락 유랑’	17 목 디 클레에 플루트 앙상블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 010-6355-2077 18 금 인천시립무용단 ‘우리춤의 향연’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2 19 토 쇼머스트와 떠나는 뮤지컬 시간여행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31

손민수 피아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3만원 ☎ 032-289-4275	20 일 제6회 인천광역시 근로자 가요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시 30분·6시 무료 ☎ 032-437-8501 연극 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나?’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7시 전석 2만원 ☎ 032-873-5174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실내악 4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23 수 2020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문화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무료 ☎ 032-440-2692	온라인 여민과 함께하는 호락호락 콘서트 미추홀학산문화원 유튜브 채널 오후 7시 게시 ☎ 032-866-3993 24 목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아이사랑 태교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초대 ☎ 032-420-2781 브런치 콘서트 이금희의 ‘동화뒷담’ - 백설공주 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2만원 ☎ 032-500-2000 25 금 인천시립합창단 ‘가곡이야기’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2 26 토 인천시립무용단 기획공연 ‘토요춤 : 춤 담은 자리 - 근·현대무용의 아버지 송범’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5,000원 ☎ 032-420-2788	캠스틱 ‘다이나믹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31 김현미 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3만원 ☎ 032-289-4275 27 일 인천브라스밴드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무료 ☎ 032-463-5554 다니엘전 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29 화 2020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2 ‘박주원 X 조정치’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5,000원 ☎ 032-500-2000
--	--	---	---



“아, 사랑아, 너무 빨라 잡을 수가 없구나. 너무 싱싱해 잡을 수도 없구나.”
인천시립극단 ‘십이야’

셰익스피어의 ‘십이야(Twelfth Night)’ 무대가 온라인 공연으로 펼쳐진다. ‘십이야’는 구세주가 나타난 것을 축하하며 12일 동안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축제의 마지막 날이다. 특히 이 작품은 1592년 전염병으로 문을 닫았던 런던 극장이 재개관하면서 공연한 첫 작품으로 유명하다. 외모까지 똑같은 쌍둥이 남매의 삼각관계, 사각관계 사랑을 재치있고 유쾌하게 그린 셰익스피어의 낭만 희극이다. 이번 무대는 한국 연극계에서 신체 움직임을 활용한 연출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임도완 이 연출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성도 높은 연출과 인천시립극단 배우들이 만나 이루어 낼 풍성한 웃음과 활기는 온갖 시름을 떨치고 평화로운 가을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코로나19, 언택트 *Untact* 이 가을, 콘택트 *Contact*

코로나19가 끈질기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바깥 활동 역시 녹록지 않은 요즘, 다행인 것은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 줄 온라인 공연·전시 콘텐츠들이 꾸준히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의 초입, 코로나19와는 언택트 Untact하고 문화와 콘택트Contact하자.



달빛을 이야기에 품다 Inside-Out 달빛 나나니

코로나19 국면 이후 인천시립무용단이 첫 대면 공연으로 야심 차게 준비했던 'Inside-Out 달빛 나나니'의 오프라인 공연이 취소됐다. 다행히 온라인으로나마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인천시립무용단의 Inside-Out 공연은 안무가로서 능력을 갖춘 단원들의 기량을 밖으로 펼쳐 보이는 기획 공연이다. 신선한 시각과 새로운 춤 언어를 개발해 단체의 레퍼토리로 지속할 만한 작품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달빛 나나니'는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흐름을 한 달을 주기로 형태가 변하는 달에 비추어, 여성의 삶 속 녹진한 한恨과 생의 기쁨을 표현한 작품이다. 달이 떠서 초승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까지를 각 장의 타이틀로 삼아 젊은 여성들의 군무, 만삭 여인네들의 수다와 같은 춤, 나이든 여성들의 위로가 담긴 춤 등 흐르는 시간과 삶을 춤에 담았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창작 춤을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 우리 춤이 가진 깊은 멋과 매력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인천 지역의 나나니춤을 비롯해 한국 전역에 퍼져 있는 집단 향토춤 동작을 연구해 독특한 지역적 색채를 세련된 현대적 이미지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일시 : 9월 11일 오후 2시 오픈
채널 : 인천시립무용단 네이버 TV,
인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 등
관람료 : 무료
문의 : 032-420-2788



동네 사랑방, 우리미술관 전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구 만석동에 자리한 우리미술관에서 온라인 전시 '집으로 가는 길'을 진행한다. 우리미술관은 인천문화재단과 동구청,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사랑방이다. 전시 작가는 이찬주. 작가는 '노동'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를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의미 있게 풀어낸다. 예술이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노동을 통해 삶에 더 근접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듯, 예술 작품은 예술가의 노동에 빚질 수밖에 없다. 이찬주 작가는 삶이라는 위태로운 크레인에 매달린 노동자이자 예술가인 우리 모두에게 사회는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노동에 빚지고 있음을 개성 있는 작품 세계를 통해 전달한다.

전시 오픈 : 9월 7일부터
전시 작가 : 이찬주
전시 장소 : 우리미술관 홈페이지(www.wooriart.co.kr)
문의 : 032-764-7663~4



연수문화재단에서 만나는 뜻밖의 연수

연수문화재단에서 기획 전시 '뜻밖의 연수'를 온라인으로 오픈한다. '뜻밖의 연수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어떤 시선들', '우리 안의 송도유원지' 2개의 전시로 진행된다. 어떤 시선들 전시에는 인천 기반 지역 소재로 다양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기존 작품과 연수구 소재의 새로운 작업 결과물을 전시한다. 두 번째 전시는 송도유원지의 시간적 내러티브를 작가의 미학적 시점과 지역민이 소장하고 있는 기억(사진과 사연)의 아카이브를 통해 제시하는 프로젝트 전시다. 인천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바라보는 연수의 다양한 시선을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시 오픈 : 9월 7일부터
전시 작가 : 오석근, 노기훈, 이현호, 백인태, 고정표, 라오미, 김수환,
김정모×황문정, 박가인, 박유미, 윤종필
전시 장소 : 연수문화재단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A7VjeRV2Ds-fPN5IN2jcHw)
문의 : 032-822-1000



인천은 내게 자부심을 준 도시

글 유필우

내가 태어난 곳은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이다. 6·25전쟁 직후 우리 가족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인천에 정착했다. 인천시 동구 송림동 39번지가 본적이자 주소지가 되었다. 나는 송림동 배다리에 있는 송림초등학교에 전학했다. 그때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고 내가 살던 송림동 일원, 수도국산, 배다리는 6·25전쟁 피란민과 인천에 새로 이주한 가족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였다. 비가 오면 동인천역 철로 주변 ‘참외전거리’나 배다리 중앙시장(양키시장) 근처는 장화 없이 다니기 어려웠다. 수도가 없어 동네 공동 수도나 우물물을 받아 물지게로 날라 오는 것은 우리 형제들의 몫이었다. 물독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흐뭇해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립다. 어려서 6·25전쟁의 참상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한 나는 송림동 배다리가 자랑스럽고 너무 좋았다. 골목을 누비고 친구들과 어울려 송림초등학교의 새로운 생활을 한껏 즐겼다. 이때 함께 배우고 사귀었던 친구들은 인천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니면서 지금도 가장 가깝게 지낸다.

송림동 우리 동네는 ‘뚝고개’라고도 불렸는데 근처에 바닷물을 담아놓은 큰 저수지가 있었다. 저수지 뚝방 너머는 바다였다. 지금은 육지가 되어 많은 공장과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때 지금의 서구 지역은 바다 건너 ‘개전너’였다. 여름이면 헤엄치고 망둥어 낚시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집 앞쪽에는 돌부처 석상이 있던 곳이라 하여 이름 붙은 ‘부처산’이 있었는데 현재의 재능대학, 청운대학이 자리한 곳이다. 부처산과 배쪽산(문학산)에도 자주 놀러 다녔다. 그곳에 ‘싱아’라는 야생 식물이 널려 있었고 싱아 줄기를 꺾어 씹으면 시면서도 달콤한 즙이 나와 목을 축이곤 했다. 그 많던 싱아는 지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나는 이곳 송림동에서 초중고교와 대학은 물론이고 내 젊은 날의 대부분을 보내며 인천 사람이 되었고 송림동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젊은 날의 추억과 즐거웠던 기억들은 내 마음 깊은 어느 곳에 내재해 있을 뿐 인천은 어떤 도시이며 나와 인천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적극적인 생각에는 미치지 못했다. 송림동, 배다리 동네에는 분단과 전쟁, 가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개척과 도전의 인천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도 한참 뒤의 일이었다. 아직 인천은 내 젊은 날 삶이 거쳐온 추억의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



20대 때 송림동 동네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유공원
인천기상대 앞에서
(사진 뒤 맨 오른쪽이 필자)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중앙경제부처와 청와대 등에 근무할 때 내가 인천에서 공직을 맡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공직 생활 중 내 뜻과 달리 두 번이나 인천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첫 번째는 중견 공무원으로 인천시 지역경제국장과 복구청장(지금의 부평구, 계양구)을 역임했다. 비로소 내가 사는 인천, 내가 함께하는 인천 시민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돌아왔다. 중앙부처의 국장으로 정신없이 일하던 어느 날, 평소 교분이 없던 최기선 인천시장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맡아주세요. 당신은 인천 사람이고 행정 경험을 두루 쌓아온 경제 전문가이니 누구보다 잘할 것입니다. 인천을 위해 함께 일합시다.” 그는 송도미디어밸리 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지정받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함께 묶는 ‘트라이포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함께 일할 적임자를 찾던 중이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인천정무부시장이 되어

최기선 시장이 추진하던 ‘트라이포트’ 프로젝트를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다. 아무리 일해도 피곤하지 않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나는 비로소 내가 사는 인천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며 내가 이곳을 위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공직을 떠난 후 수년간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을 맡았고, 미추홀구의 국회의원까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천을 진정 아끼는 이들이 만든 범시민운동협의체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이 되었다. 인천에서 행정가로, 정치인으로, 사회복지사업가로, 인천사랑운동가로 일하게 된 것은 모두 인천 시민들이 나를 키워주고 인천과 함께한 결과였다. 인천은 이제 소년의 삶이 거쳐온 비루한 곳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함께하면서 변화시키고 사랑해야 하는 숙명적인 대상이 된 것이다. 인천은 전국에서 모인 분들이 함께 일구어온 도시다. 인천에 정착하면서 갖은 고생 끝에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일으켜 자식들을 키워온 개척과 도전의 땅이다. 도시의 다양성, 효율성, 다문화성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높고 지리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인천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인천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중앙부처나 타 시도로부터 홀대받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인천 발전의 원동력은 자부심과 애郷심이다. 우리는 인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인천 시민의 의무요 권리다. 이 일을 위해 부족한 나의 힘을 더 보탬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필우(75) 전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은 인천에서 송림초등학교와 인천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를 다녔다. 행정고시에 합격, 중앙부처와 청와대에 근무한 뒤 최기선 인천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퇴직 후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국회의원,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인천 사랑을 실천해 온 인천의 원로다.



IMAGE NEWS

01

인천형 뉴딜의 시작
New Deal



#인천형 뉴딜 전담팀(TF) 구성
#9월 종합 계획 발표 #인천시 현안 해결과
도시 미래 변화 위한 #투 트랙(Two Track) 전략

02

디지털 그린 휴먼+바이오
New Model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 뉴딜 정책 3대
핵심 분야에 #인천의 비교 우위 산업
바이오 추가 #3+1축으로 뉴딜 계획 설정

03

도시 현안 해결
New Wave



#스마트 상하수도, 스마트 자원순환,
섬 지역 스마트 의료 등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도시 환경 관련 사업 우선 검토

04

미래 경쟁력 강화
New Age



#해상 풍력 발전, 스마트 산단, 디지털 트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AI 클러스터
육성으로 #새로운 미래 인천 완성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 + 소통으로 민·관 합의를 이끌어냈던 일명 ‘배다리 지하차도’의 상부 공간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 + 우리 시는 코로나19가 재차 확산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성묘와 차례를 지내는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 +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예술회관역까지 중앙공원 3개 지구가 하나로 연결된 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 + 우리 시는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의 캐시백 10% 상향 적용 혜택을 기존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2개월 재연장한다.
- + 인천가족공원에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이 조성된다.
- + 우리 시는 2023년까지 편안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류소 승강장 1,176곳을 확대 설치·교체할 예정이다.
-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에 만국기 거리가 조성된다.
- + 우리 시가 연수구 동춘동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전면 개보수해 2022년까지 인라인 테마파크로 조성한다.

NEWS BRIEF

코로나19 심각한 위기에 강도 높여 적극 대응



인천지역에서 실외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는 등 고강도 대책이 지난 8월 24일 0시부터 시행중이다.

우리 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대책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지난 8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사항보다 강화해 실외에서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3분의 1씩 재택근무에 돌입하기로 하는 한편, 위기 극복과 확산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했다.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부대시설 운영도 모두 중단하고, 공원구역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실내 체육시설과 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비대면 미사·예배와 법회로 전환해 줄 것을 정중히 권고했다.

시민들에게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시 대변인실 032-440-306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재개소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시가 지난 8월 24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재개했다. 장소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고용노동연수원으로 총 111명(1인 1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4개 반 34명의 인력(시 공무원 8명, 소방 공무원 1명, 의료진 13명, 군인 8명, 경찰 4명)이 상주한다.

시는 이곳에 인천지역 환자를 우선 수용할 예정이며, 병상에 여유가 있을 때 서울과 경기지역 환자를 받을 예정이다.

시 자치행정과 032-440-2422



전국 최초 온라인 성묘·차례상 서비스 제공

우리 시는 코로나19가 재차 확산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성묘와 차례를 지내는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온라인 성묘·차례 서비스는 9월 28일~10월 11일 제공되며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인터넷 홈페이지(www.insiseol.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9월 7일~18일 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해야 한다.

인천가족공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10월 4일 분향실(제례실)을 폐쇄하고, 셔틀버스도 운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32

인천e음 캐시백 10월까지 10% 상향

우리 시는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의 캐시백 10% 상향 적용 혜택을 기존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2개월 재연장한다. 이에 따라 10월 말까지 월 50만원 이하 결제 시 캐시백 10%, 월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결제 시에는 1%의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2

공영주차장 4,700면 늘려 원도심 주차난 해소

우리 시가 12월까지 주택가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대폭 늘린다.

시는 올해 1,577억원을 들여 43곳에 차량 4,742대를 세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로 했다. 주로 중구,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 등 주택가가 몰려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지난해 기준 129만 대에 이른다.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주차면은 131만 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101.6%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이 몰려 있는 옛 도심권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이 72.2%에 불과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 교통관리과 032-440-3922

2020 여객 및 화물 보수교육 온라인으로 실시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9월~11월 말 ‘여객 및 화물 보수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다.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과 화물 운수종사자는 무사고, 무벌점 기준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으로 4시간의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교통연수원 홈페이지(www.int.or.kr)를 통해 5개 과목의 최신 강의를 교육받을 수 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이수할 수 있다.

시 택시화물과 032-440-3803

인천가족공원에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인천가족공원에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이 조성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지역 보훈단체들과 협의해 인천가족공원의 남쪽 시설인 봉안담 일부 구역을 국가유공자 묘역으로 개보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가족공원에 총사업비 7억4,000만원을 들여 4,144기 규모(부지 면적 1만2,000㎡)의 국가유공자 묘역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3만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살고 있지만, 전용 묘역이 없어 사망 시 멀리 떨어진 국립묘지나 현충원을 이용해야 한다.

시 보훈과 032-440-2972

하나로 연결된 중앙공원 만족도 98.3% 만족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예술회관역까지 중앙공원 3개 지구가 하나로 연결된 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공원 보행육교에 대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객의 98.3%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개 지구를 이용할 때보다 보행육교 설치 후 3개 지구를 연속 이용하면서 공원 내 이용 공간이 더 다양해졌다는 의견은 98.1%였으며, 공원 이용 시간이 종전보다 늘었다는 의견도 96.7%에 달했다. 또 보행육교 설치 후 공원 이용 횟수가 늘었고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99.4%로 나와 보행육교 설치 후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대공원사업소 032-440-5823



이달부터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우리 시는 이달부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민선 7기 공약인 아동 치과주치의는 영구치열이 자리 잡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등 예방적 구강관리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강검진을 원하는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학생은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정 의료기관에 전화 예약 후 필요 서류(문진표·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치과를 방문하면 된다. 9월 2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용 앱 ‘덴티아이’에 회원 가입 후 문진표 등을 미리 입력해 두면 병원 방문 시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건강진정과 032-440-1593

배다리 지하차도 상부 공간 주민 공간으로 ‘재탄생’



소통으로 민·관 합의를 이끌어냈던 일명 ‘배다리 지하차도’의 상부 공간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우리 시는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간 미개설 구간의 지하차도 상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동구 창영동 13-31번지 일원 1만3,350㎡ 면적의 배다리지역 지하차도 상부 공간에는 공원,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내용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교통성, 경관성, 재해영향성 검토 등 공원 조성 계획 및 건축 기본 구상을 담고 있다.

시 주거재생과 032-440-3477

영종하늘도시에 만국기 거리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에 만국기 거리가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하늘도시 중심 상업지역인 자연대로 553m 구간 중앙분리대에 국기게양대 70개를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청은 송도·청라국제도시와 비교해 영종이 국제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도로경관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LH와 협의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국제도시 컨벤시아대로와 청라국제도시 중봉대로에 각각 만국기 게양대가 설치돼 있으며 각종 국제행사 때 참가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583



인천 스타트업 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업무협약

오는 12월 오픈을 앞두고 있는 인천 스타트업 파크가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기술상담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ETRI와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서면 업무협약을 지난 8월 27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자 대상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상담(컨설팅) 지원을 비롯해 실무 중심 빅데이터·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신규 인재 양성, 국가연구과제 등 수행을 위한 경제청 스마트시티 데이터 공유 및 연구결과물에 대한 실증 지원, ETRI 연구자 파견 등을 중심으로 인천 스타트업 파크의 창업 생태계 육성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473

버스정류소 승강장 1,176개소 새 단장

우리 시는 2023년까지 편안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류소 승강장 1,176곳을 확대설치·교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승강장 노후화로 인한 원도심에 거주하는 시민 이용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대설치하는 승강장(셀터형)은 모두 500곳으로 1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노후화된 676개의 승강장도 117억8,900만원을 들여 표준 모델로 교체하고, 제각각 세워져 있는 지주형·판형 버스 표지판 800개도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버스 표지판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인천지역에는 모두 5,867곳의 버스정류소가 있다. 이 중 승강장(셀터형)이 3,663곳이고 버스 표지판이 2,204곳 있다.

시 버스정책과 032-440-3658

첨단 AI산업 도시 조성 ‘시동’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유망 기업을 잇따라 유치했다. 소프트웨어(SW) 융합기업이 집적화돼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 글로벌캠퍼스에 비트나인과 티지를 입주시켜 AI를 기반으로 한 SW 융합 혁신성장을 꾀할 계획이다.

비트나인은 AI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전문기업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데 최적화된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티지는 데이터 거버넌스 컨설팅과 빅데이터 컨설팅을 통해 AI 플랫폼을 구축하며 데이터셋, AI 솔루션을 전자정부 솔루션과 통합, 함께 해외에 수출하는 전문기업이다.

시는 이번 AI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인천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미래산업과 032-440-3274



무자격 공인중개사 정비 강화

우리 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자료 정비를 강화한다.

이번 시의 정비 대상은 사망자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통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1985년(1회)~2019년(30회) 인천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교부된 2만6,327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다.

시 토지정보과 032-440-4562

전국 유일 인라인 테마파크 2022년 개장

우리 시가 연수구 동춘동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전면 개보수해 2022년까지 인라인 테마파크로 조성한다. 시는 올해부터 국비 24억원 등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춘 인라인롤러경기장 일대 2만6,000㎡에 전국 유일의 인라인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1999년 준공돼 시설이 낡은 기존 인라인롤러경기장의 내부 트랙을 개보수하고 자연 친화적인 지붕막 시설을 확충, 사계절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경기장 외곽에 인라인 트레일과 산책로 등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다.

시 체육진흥과 032-440-4096

송도 약국 36곳에 영어 표지판 ‘PHARMACY’ 부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약국 36곳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에 약국을 알리는 영어 표지판 ‘PHARMACY’를 부착한다.

경제청이 약국 영어 표지판 부착에 나선 것은 일반적으로 약국 이름이 한글로만 표시돼 있거나 일부는 한자인 ‘藥(약)’자만 표기하고 있어 영어권 외국인들은 약국임을 알지 못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약국 영어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662

COUNCIL NEWS

국제교류 예산 반납으로 위기극복 앞장

인천시의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우 등 잇따른 위기 상황에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국제교류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관련 예산 총 1억5,050만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반납 예산은 의원국외여비(9,950만원)와 수행직원을 위한 국제화여비(3,300만원) 및 국외업무여비(1,200만원), 국제교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600만원) 등이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업무추진비와 의원국외여비 일부 등 약 6,500만원과 7월 제8대 의회 하반기 개원 기념식을 취소한 행사예산 860만원도 반납했다.

시의회 의장은 “예산 반납에 동참한 의원과 서한문을 통해 국제교류 계획 취소를 지지해 준 자매도시 의회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례 없는 재난난에 고통을 겪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 부평지하도상가 상인 의견청취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조례 개정 이후 갈등이 지속되는 지하도 상가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7월 30일 전대·양도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하도 상가를 방문했다. 이 조례는 감사원·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개정·시행됐다. 이날 상가연합회 대표들은 개정 조례가 양도·양수, 전대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신규 임차인 감소로 공실이 증가한다고 호소했다. 지하도 상가 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의회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내용을 설명하며 “지하도 상가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협의회가 본격 운영되고 있다.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지하도 상가가 활기를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의정모니터 55명 위촉, 2년간 활동

인천시의회의는 지난 13일 제5기 의정모니터 55명을 위촉했다. 의정모니터는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제4기까지 7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모니터는 공모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했고, 경력·성별·지역별·연령별 안배를 고려해 구성했다. 5기 의정모니터는 2022년 6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의정모니터는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을 제보하거나 제도 개선, 의정 발전 방향 등을 시의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년간 활동한 4기 의정모니터의 경우 235건의 제안 사항을 접수해 80건이 개선됐고, 24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의회운영위, 정책지원 전문인력 성과평가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함께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중심으로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더 충실하기 위해 의회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행정위, 유관단체와 릴레이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8대 후반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기획행정위원회 유관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8월 18일 한국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지부,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시작으로, 19일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20일 바르게살기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21일에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등 총 11개 단체와 릴레이Relay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별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공유와 소통을 통해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주요 업무보고, 예산심사 시 활용함으로써 단체들의 활동과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5기 의정발전자문단 시민 등 35명 위촉

인천시의회의는 지난 8월 6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시민소통을 위해 제5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여 학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돼 제8대 후반기 의회와 함께 2년의 임기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조사, 정책자료 제공 및 대안 개발,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경제위, 송도세브란스병원 토론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형순 알파링크 부사장,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이 발제를 맡아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철홍 인천대학교 교수, 이혁재 셉트리온 전무, 이창호 기호일보 기자, 한균희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장, 김병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와 시의원, 시민단체, 시민, 공무원 등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주제 발표에 앞서 인천시의회 의장은 “토론회가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인천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愛의회> 구독 안내

인천의회저널이 시민이 뽑아준 새 이름 <인천愛의회>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더욱 자세한 의정활동 소식은 <인천愛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愛의회>는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7~8

웹진으로 보기 www.icouncil.go.kr/journal



인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인천의 이야기, 인천 시민 여러분의 색으로 채워주세요.

인천이 그리다 인천을 그리다

작가의 말

역사를 비춘 불빛, 팔미도 등대

팔미도는 국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풍광 좋은 섬이다. 이곳의 등대는 한국 최초이자, 인천상륙작전 당시 빛을 밝혀 포격 지점을 알림으로써 나라를 구한 시발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의미심장한 역사를 품은 이곳 팔미도는 인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둘러봐야 할 곳이다. 불어오는 상쾌한 바닷바람, 멀리 보이는 인천대교의 웅장함, 점점이 떠 있는 섬과 배들을 천천히 감상하고 있노라면, 인천의 어제와 오늘이 한눈에 들어온다.



팔미도 등대(화첩지에 먹과 채색) 50x35cm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8월 드로잉 인천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규리 부평구 갈월동로



신명숙 미추홀구 매소홀로



김민영 남동구 서판로



이정희 서구 검단로



이문기 남동구 석산로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이메일 : goodmorningic@naver.com
- 3) 기간 : 2020년 9월 18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이달의 드로잉
이환범 작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개인전 10여 회와 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전, 서울시립박물관 도시와 미술전, 국립현대박물관 찾아가는 미술관, 인천문화예술회관 한국화대전 등 다수의 단체전을 가졌다. 현재 인하대학교 조형예술과 명예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우리 시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관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적용 대상 : 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적용 장소 : 실내외 모든 공간(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적용 기간 : 별도 해제 시까지(계도 기간 10월 12일까지)
문의 : 시 보건의료정책과 ㉠ 032-440-7827



02 뷰파인더 속 국제도시 송도 공모

(사)광원아트홀에서 송도국제도시를 널리 알리고 문화적 매력과 가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1회 광원아트홀 사진 공모전 <국제도시 송도>’를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 :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응모 자격 : 송도국제도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모 주제 : 송도국제도시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풍광과

도시 경관

공모 부문

* 일반 사진 부문 : DSLR, 드론, 스마트폰 등의 기기로

촬영된 디지털 작품 출품 가능

* 스마트폰 사진 부문 :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모든 일상의

모습 출품 가능

공모 방법 : ㉡ www.gwart.org/contest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서 작성 후 ㉢ gwart.contest@gmail.com 접수

문의 : (사)광원아트홀 ㉠ 032-858-7650

03 인문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창작 지원 공간 ‘중구난방’에서 미술과 영화를 주제로 하는 ‘생활 문화 시설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상 : 20세 이상 시민

장소 : 중구난방(인천시 중구 신포로 15번길 6-2 3층)

참가비 : 무료

미술편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

매주 화요일 오후 3시~6시

문의 : ㉠ 010-9428-2411 ㉢ rocksbm@naver.com

영화편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

문의 : ㉠ 010-3860-3820 ㉢ uma87@naver.com

04 ‘남동구 영상 만들기’ 응모하세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남동구의 매력을 알리는 ‘2020년 남동구 크리에이터 영상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 기간 : 9월 25일까지

응모 자격 : 누구나

공모 주제 : 남동, 이야기가 있는 영상

- 남동구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

- 추억이 깃든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동네 이야기

-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남동구 이야기

- 따뜻하거나 특별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

- 나만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표현한 남동구 이야기

- 남동구의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

공모 분야 : 영상 콘텐츠(제한 없음)

접수 방법 : 유튜브 등 개인 채널에 영상 업로드 후

㉢ mjlee0921@korea.kr 제출

문의 : 남동구 미디어정보과 ㉠ 032-453-6242

05 청년의 시선으로 만드는 인천의 미래

대학생, 대학원생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신규 시책으로 발굴하고자 ‘2020 대학(원)생 아이디어 소논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주제 : 1주제 선택 응모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전반)

* 인천시 인구 정책 추진 방안

(결혼 및 출산 장려, 일과 가정 양립 정책 등)

공모 기간 : 9월 7일까지

공모 자격 : 전국 (전문)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

재학생 및 휴학생

논문 분량 : A4 10매 이내

접수 방법 : ㉢ barbeque@korea.kr

심사 기준 : 독창성, 실현 가능성 등

문의 : 시 혁신과 ㉠ 032-440-1652



06 인천의 내일, 시민이 직접 만듭니다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특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2021년 주민 참여 예산 산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기간 : 9월 20일까지

투표 대상 : 12개 분야별 83개 사업

투표 방법 : ㉡ www.incheon.go.kr

결과 발표 : 9월 24일 주민참여예산 총회(투표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음료 기프티콘 선물)

문의 : 시 예산담당관 ㉠ 032-440-2244

07 게임으로 건축하는 인천의 랜드마크

우리 시가 세계적인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인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보는 ‘2020 인천 랜드마크 건축 콘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접수 기간 : 9월 13일까지

공모 주제 :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참여 방법 : ㉡ www.incheon.go.kr ㉢ incheoncraft@directormarket.com

문의 : 시 소통기획담당관 ㉠ 032-440-3082

08 새롭게 변신한 공장의 환경 둘러봐요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 기업 및 개선된 산업 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산업 시설 탐방 프로그램 ‘인스로드’를 운영합니다.

탐방 내용 : 인천시 선정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 기업 및 환경 개선 추진 사례 연계를 통해 발굴된 산업 시설 코스 탐방

운영 방식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탐방 영상 시청, 기업인과의 화상 질의응답
소요 시간 : 약 1시간 소요

참가 인원 : 차수별 20~30명 내외

대상 : 시민 누구나(중학생 이상)

일정 : 9월~11월 매주 수요일

참가비 : 무료

신청 방법 : ㉡ www.idsc.kr/sub_ko/sub10.php

문의 : 인천TP 환경디자인센터 ㉠ 032-260-0223, 0257

09 시민재산 풍수해보험이 지켜드립니다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가입 대상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과 집기비품, 기계, 재
고자산, 아파트를 포
함한 공동주택과 단

독주택, 농·임업용 온실(면적 제한 없음)

* 소유자, 세입자 누구나 가입 가능

대상 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보험 기간 : 1년(가입자 필요에 따라 2~3년 장기 계약 가능)
지원 규모 : 52.5~92%(주택, 온실), 59~92%(소상공인 상가·공장)

* 인천시와 정부의 지원율은 가입자와 대상물, 군·구의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됨. 군·구의 가입상황에 따라 지방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음.

* 가입자의 자기의무부담율 8.0% 이상임.

가입 문의 : 5개 보험사 인천지역 설계사

DB 손해보험 : ① 010-8756-8034

현대해상화재보험 : ①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 ① 010-5215-8727

KB 손해보험 : ① 010-5022-0204

NH 농협 손해보험 : ① 010-5898-3210

기타 문의 : 시 자연재난과 기후지진팀 ① 032-440-3359

10 ‘인천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우리 시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인천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수시 모집합니다.

사업 목적 : 현재 추진 중인 희망 일자리 사업의 중도 포기자 발생에 대비한 예비 인력 모집
근로 기간 : 근로 시작일~11월 30일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

신청 방법 : ⑤ icnhope2@korea.kr ⑥ www.incheon.go.kr

선발 결과 : 총원 필요 시 개별 연락

문의 : 시 사회적경제과 ① 032-458-7060

11 LH 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우리 시가 LH 인천지역본부와 협력해 LH 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지원하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 : 현재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신청 기간 : 12월 31일까지 상시 모집

신청 방법 : ① 070-5089-2924(현장 상담 센터)

진행 절차 : 전화 신청 > 현장 밀착 상담 > 서류 접수 > 자격 검증 > 계약 > 입주

문의 : LH 이주지원 119센터 ① 032-717-8562

12 면접부터 취업까지 온라인으로 해결해요

취업이 필요한 지역 인재와 우수 기업체와의 온라인 만남의 장을 통해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2020 온라인 인천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개최 기간 : 10월 29일까지

행사 장소 : ⑥ www.incheonjob.co.kr

주요 내용 : 우수 기업체와 구직자와의 매칭을 통한 채용 서비스 제공 등

* 구직자들을 위한 화상 면접

- 운영 기간(2회) : 9월 21일~25일, 10월 12일~16일

- 운영 장소 :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대회의실

문의 : 운영사무국 ① 02-546-8216

13 늦은 밤에도 약국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 또는 휴일 등에도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한 의약품 남용 최소화 및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 심야 약국이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 : 연중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시(연장 운영)

인일약국 : 중구 연안부도로 9 ① 032-883-9919

인영약국 : 미추홀구 인하로 301-1 ① 070-8874-7561

보광약국 : 남동구 경인로 586 ① 032-427-9729

동암프라자약국 : 부평구 열우물로 50 ① 032-421-8642

성모약국 : 서구 원창로 174, 102-103호 ① 032-583-6083



14 오랜 역사 깃든 ‘이어가게’ 발굴 지원

우리 시가 원도심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특색이 담긴 오래된 가게인 ‘이어가게’를 발굴해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 : 9월 15일까지

선정 대상 :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위 중인 소상공인

선정 규모 : 10개소(중구·동구)

지원 내용 :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시설 개선비 지원 및 사후 관리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⑥ www.incheon.go.kr 참고)

문의 : 시 소상공인정책과 ① 032-440-4227

15 직장 내 성범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인천지방경찰청 직장 내 성범죄 관련 신고 안내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고 : 국번 없이 117/112(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경우)

* 피해자 담당 여성 경찰관이 안내

온라인 신고 : 스마트 국민 제보

(onetouch.police.go.kr)

방문 신고 : 경찰서(민원실/여청수사팀) 또는 해바라기센터

* 피해자 본인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피해 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문의 : 인천지방경찰청 ① 032-455-2548

16 감미로운 음악과 사연 신청하세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맞이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는 연수 프린지 페스티벌 돗자리 콘서트 ‘나의 음악 앨범’을 개최합니다.

일시 : 9월 23일 오후 7시 20분~8시 40분

장소 : 연수구 대학공원(우천 시 청학문화센터 청학아트홀)

내용 : 지역 주민들의 신청곡 및 사연을 클래식 앙상블 ‘클바넷’이 소개하고 대한민국 대표 포크밴드 ‘자전거 탄 풍경’이 공연

사전 신청 : 9월 10일부터(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 ⑥ www.yeonsu.or.kr 및 전화

관람료 : 무료

문의 : 연수문화원 ① 032-821-6229

17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풍성

[미추홀도서관]

초등매일 공부법

일시 : 9월 20일 오후 3시~5시

대상 : 초등학생 보호자 40명

문의 : 미추홀도서관 ① 032-440-6666

퇴근 후, 그림책 한 권

일시 : 9월 28일 오후 7시~9시

대상 : 성인 20명

문의 : 미추홀도서관 ① 032-440-6666

[청라국제도서관]

삶을 쓰다, 인생 2막을 위한 여정

일시 : 9월 2일~23일 오전 10시~오후 1시

대상 : 성인 10명

문의 : 청라국제도서관 ① 032-562-1674

세계 시민으로 세상 읽기

일시 : 9월 11일~25일 오후 4시~6시

대상 : 초등학생 5~6학년 10명

문의 : 청라국제도서관 ① 032-562-1674

3D 공룡의 세계

일시 : 9월 13일 오전 10시~오후 1시

대상 : 초등학생 3~4학년 10명

문의 : 청라국제도서관 ① 032-562-1674

[청라호수도서관]

푸른 돌밭 이야기

일시 : 9월 15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 성인 30명

문의 : 청라호수도서관 ① 032-563-8126

베트남, 하노이!

일시 : 9월 19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 초등학생 1~3학년 15명

문의 : 청라호수도서관 ① 032-563-8126



잘 버리고 덜 버리는
우리 모두가 ‘버리스타’



인천시는 지난 5월 29일부터 자원 순환 캠페인 ‘#버리스타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버리스타는 ‘버리다’와 ‘Star’의 합성어로, 쓰레기 ‘잘’ 버리고 ‘덜’ 버리기에 앞장서 우리 모두 지구의 스타가 되자는 의미가 담겼다. 친환경 선도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녹아 있다.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틱톡×영탁과 함께하는 #버리스타챌린지’의 반응은 뜨거웠다. 틱톡 사용자들이 대세 가수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에 맞춰 잘못 분리 배출된 쓰레기를 찾아 제대로 분리하는 과정을 촬영해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캠페인에는 1,324건의 콘텐츠가 올라왔고, 2,230만 뷰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인천시 틱톡 신규 공식 계정도 큰 관심을 끌며 팔로워 1만1,959명, 좋아요 10만4,100건을 기록했다.

8월 17일부터는 ‘버리스타 : 지구인의 두 번째 직업’을 주제로 한 TV CF도 론칭했다. 버리스타를 떠올리는 복장을 한 주인공이 올바른 방법으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다. 이번 광고는 10월 중순까지 전파를 탄다.

9월에는 자원 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인스타그램을 통한 #버리스타챌린지도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속적인 캠페인 진행을 통해 자원 순환 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SNS를 통한 시민 참여를 유도해 분리 배출 행동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버리스타챌린지



월미바다열차 역사驛舎가 새 단장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춰 섰던 2월부터 7월까지 열차가 정차하는 4개 역을 테마 역사로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월미바다역은 역사와 문화의 새 옷을 입었다. 근대 문화와 건축물을 모티브로 월미도의 역사와 월미바다열차 8경, 근대 문화유산, 이색 여행 루트 등을 전시하고 개화기 옷 입어보기, 사진 체험 공간 등이 조성됐다. 2층 대합실에는 <굿모닝인천> 비치대도 마련됐다.

월미공원역은 자연 생태와 월미공원을 테마로 가상현실(VR) 체험존, 월미도의 자연과 둘레길 소개, 정원 휴게 공간, 옥상 전망대 등으로 채워졌다. 키오스크형 디지털 사이니지가

가 설치되어 다양한 시정 소식도 접할 수 있다. 전쟁과 평화의 섬을 테마로 인천상륙작전 아트월, 월미문화의거리 변천 과정 사진 전시, 옥상 휴게 공간, 물치도 조망 패널 등으로 꾸며진 월미문화의거리역과 인천 등대 테마 공간, 등대 포토존, 월미도와 개항장 박물관 소개 코너를 만날 수 있는 박물관역도 볼거리로 가득하다.

8월 11일 운행 재개 예정이었던 월미바다열차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멈춰 섰다. 인천과 월미도의 역사歴史를 덧입은 월미바다열차 역사驛舎를 만나는 시간도 잠시 미뤄졌다. 머지않아 시민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달릴 꼬마 열차를 기다린다.

인천 지명

세 개의 뿔이 모인
쇠뿔고개



창영동은 구한말부터 우각리牛角里라 불리던 지역이다. 우각리는 지금의 경인전철 도원역 주변, 인천세무서가 있는 언덕을 말한다. 이곳을 우리말로 ‘쇠뿔고개’라 불렀는데, 이를 그대로 한자로 바꾼 이름이 우각현牛角峴이다. 여기서 우각리가 나왔다. 따라서 우각리의 원래 이름은 쇠뿔고개다. 쇠뿔고개는 일반적으로 언덕의 모양이 소(牛)의 뿔(角)처럼 휘어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 모양이 실제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국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쇠뿔고개를 삼각산三角山처럼 봉우리(角)가 세(三) 개인 고개, 곧 ‘세뿔고개’의 변형으로 보기도 한다. 창영동은 쇠뿔고개(우각현)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송림산(수도국산)과 예전에 박태선 씨의 전도관이 있던 언덕이 비교적 높게 서 있다. 따라서 이들 세 곳을

세 개의 뿔로 보아 세뿔고개라 부르던 것이 쇠뿔고개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쇠뿔이 쇠불(鐵火), 곧 쇠를 녹이는 곳이라는 뜻이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곳이 옛날 쇠의 생산지여서 쇠를 녹여 물건을 만들던 곳이었기에 쇠불 또는 쇠불골로 불리다 쇠뿔고개가 됐다는 말이다. 이는 바로 옆 동네인 금곡동의 옛 이름이 쇠골, 쇠골이었던 것이 옛날 쇠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는 해석과 똑같은 말이다. 하지만 이곳에 광산이나 제련소 같은 곳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미뤄둘 수밖에 없는 해석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쇠뿔고개’가 ‘세뿔고개’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는 해석이 그나마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1978.09.09
부평지하상가 준공

인천 소사

인천에서 붐비는 곳 중 하나, 부평역이다. 이곳을 처음 찾는 이들이라면 역과 연결된 부평지하상가의 풍경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둥근 광장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은 상가의 행렬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 그 규모는 세계도 인정했다. 부평지하상가는 2014년 11월 단일 면적 세계 최다 점포를 가진 상가로 ‘월드 레코드 아카데미’에 등재됐다. 부평역 언저리부터 문화의거리까지 1.8km, 총 3만1,692m² 면적에 1,400개가 넘는 개성만점 점포들이 운영 중이다. 하루 유동 인구만 10만여 명.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과 셀 수 없이 많은 길, 빼곡한 점포들을 보면 어디서부터 둘러봐야 할지 고민될 정도다.

그때, 9월의 인천은...

- | | |
|--------------|------------------------|
| 1899. 09. 18 | 인천~노량진 간 철도 개통(최초의 철도) |
| 1957. 09. 15 | 맥아더 장군 동상 제막식 거행(자유공원) |
| 1960. 09. 06 | 애관극장 신축 개관 |
| 1960. 09. 17 | 인천역 역사驛舍 준공 |
| 1975. 09. 25 | 인천버스종합터미널 준공 |
| 1983. 09. 01 |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개원 |
| 1984. 09. 15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준공 |
| 1987. 09. 16 | 인천보훈회관 기공 |

자매의 빛

사연 김남아·김선이(남동구 성말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동생과 함께 인생 제2막을 준비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터를 잡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테리어도 손수 마쳤습니다. 2019년 10월, ‘노웨어벗히어Nowhere But Here’라는 이름의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가게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고 손님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오래가지 않았 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은 탓 이었습니다. 발길이 끊기고 매출은 곤두 박질쳤습니다. 가게를 포기할 수는 없었 습니다. 어떻게든 건디겠다는 생각에 여 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이 미 받은 대출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 다. 그러던 중 인천시에서 어려운 소상공인 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심사 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다 금리까지 낮은 ‘인천시 코로나 특례 보증’을 지원받았 습니다. 빛은 늘었지만 빛이 보이기 시 작했습니다. 매출도 서서히 회복세를 탔 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이 두려 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노 력이 더해진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빛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웨어벗히어(Nowhere But Here)
위치 :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
문의 : 0507-1374-5979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仁生 사진관’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인천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을 실어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수인선



2020년 8월, 새로운 소래철교 위를 달리는 수인선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침묵 사이로 내려다본 갯벌은 아찔했다. 회오리를 돌며 거칠게 흐르는 바닷물은 시커먼 블랙홀처럼 보였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한두 발짝 내디뎠던 발걸음을 접고 뒷걸음질을 쳤다. 녀석과의 ‘누구 간이 더 큰가’ 게임은 1분도 안 돼 끝났다. 술기운이긴 했지만 녀석은 성큼성큼 다리를 잘도 건넜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협궤열차가 지나던 ‘소래철교’는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다리였다. 하루 세 번 수인선이 지나는 시간을 피해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다녔다. 곤쟁이젓갈, 고년조개젓갈 광주리를 머리에 인 여인들, 소금을 어깨에 짊어진 염부들이 소래철교를 건너는 모습은 위태로웠다. 6·25전쟁 시기 소래철교를 건너던 피란민들이 많이 빠져 죽기도 했다. 소래철교의 주인은 ‘수인선’이었다. 협궤 열차, 꼬마 열차라 불린 수인선의 철로 폭은 일반 철로의 반 토막에 불과했다. 열차 크기가 작고 2량~3량만이 붙어 운행했다. 군데군데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앉으면 무릎을 펴기가 어려웠고, 불과해진 사내들의 막걸리 냄새가 풍겨오기 일쑤였다. 새우젓, 생선 냄새가 진동하고 개똥참외가 굴러다녔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다. 수인역에 서는 장터에 내다 팔 것들이었지만, 열차 안 즉석 흥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누군가에겐 동화의 세계로 기억되기도 했다. 8년 전 만난 소래 출신 연극인 박정자 씨는 “열차가 덜컹거리며 소래철교 위를 천천히 지나갈 때면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버스운전사처럼 바로 내 앞에 앉아 운전하는 기관사 아저씨도 정겨웠고, 열차 창문을 가리는 빛바랜 분홍빛 커튼의 실루엣도 아름다웠다”고 회상했다. 용현동 뚝고개를 넘지 못해 깡깡대면 학생들이 뛰어내려 뒤에서 밀었다느니, 버스와 부딪혀 뒤로 나동그라졌다느니 긴가민가한 일화도 전해온다. 수인선은 인천에 사는 일본인들이 경기 내륙까지 상권을 확장하기 위해 건설한 철도이다. 조선의 소금과 쌀에 군침을 흘리던 일본은 수인선 건설 뒤 소래와 남동, 군자에서 생산한 소금을 한 톨 남김없이 인천항으로 실어 날랐다. 경기도에서 생산한 쌀을 수송하기 위해 건설한 수려선(수원~여주)을 인천항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이용률과 승객이 급감하면서 1995년 12월 31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폐선된 지 25년 만에 수인선이 재개통한다. 오는 9월 12일 52.8km 전 구간 첫 운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인천~구로~수원 간 지하철로 90분 걸리던 시간이 55분으로 35분이나 단축된다. 2012년부터 단계적 개통을 시작한 수인선은 사업비만 2조74억원이 투입된 대역사이다. 1937년 아픈 시대에 태어나 광복 이후엔 낭만과 추억으로 달리던 수인선. 좁은 선로를 덜컹덜컹 뒤통거리며 달리던 꼬마 열차는 바야흐로 좋은 시대, 늙름한 청년으로 성장해 다시 미래를 향해 질주할 것이다. 최신형 고속전동차가 되어, 인천의 미래처럼 짙 짙은 선로위를.



올림포스 호텔 앞에서 올림포스 뽐내기

무더운 여름날, 공사장 크레인이 올림포스 호텔 앞에서 ‘올리는 힘(올림force)’을 자랑하며, 철근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호텔의 영문 이름은 그리스 신들이 모여 산다는 Olympus입니다. 이름하고 걸맞게 한때는 인천의 선남선녀들이 모여들던 핫 플레이스였죠. 인천 내항 재개발로 이 일대가 화려했던 옛 영광을 되찾길 기원합니다.

글·사진 백상현 본지 편집인